

똑같은 추석 선물세트 대형마트가 30% 싸다

한국소비자원 선물세트 895종 조사 동일 22종 백화점보다 20~30% 저렴 주류·건강식품 최대 5만원 이상 차이

똑같은 추석 선물세트라도 백화점보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게 30% 가까이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가 정부의 먹거리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마트 별로 행사기간 및 품목이 달라 동일 상품이라도 브랜드별 가격 차이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4일 발표한 추석선물세트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선물세트 24종 중 22종(91.7%) 가격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 20~30% 저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와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를 대상으로, 햄·통조림·생활용품·건강기능식품·주류 등 명절 필수품 895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우 등 축산 선물세트와 굴비 등 수산 선물세트는 제외됐다.

생활용품 부문의 경우 'LG 시그니처 컬렉션'과 '동원 감태미 M11호' 2종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대형마트가 더 싸다.

동일한 상품인데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간 가격 차이가 가장 컸던 상품은 양주 '글렌글라드 15년' (700ml)으로 1개 구입 시 대형마트에서 7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했다.

'동원 프리미엄 86호' 선물세트의 경우 백화점에서는 7만 8500원, 대형마트는 5만 495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최대 2만 3550원의 차이가 났다.

대형마트 간 가격 차이도 발생해 동일 상품 중 11종(통조림 8종·건강기능식품 3종)은 마트 별로 상품 가격이 달랐다. 대형마트 간 할인 행사에 포함되는 품목 및 할인 방식이 다른 게 원인으로 꼽혔다.

'CJ 특별한선택 K호' 선물세트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2만 9900원으로 판매되는 반면, 롯데마트에서는 '2+1'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일 품목으로는 4만 3900원에 구입해야 했다.

'종근당 락토픽 골드 더블세트'는 롯데마트는 2만 3800원, 홈플러스는 3만 1800원으로 8000원 차이가 났다.

백화점 3사가 판매하는 주류와 건강기능식품도 최대 5만원 이상 가격차이를 보였다.

'조니워커블루 (750ml)'는 현대백화점이 40만 6000원, 롯데백화점(35만원)은 5만 6000원(16.0%) 비쌌다.

광주지역 대형마트 관계자는 "참치, 햄 등 명절 먹거리를 중심으로 대형마트들이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가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마트 간에도 같은 상품을 두고, 할인 행사 여부와 할인 품목 선정, 할인이 적용되는 행사카드 등에서 큰 비용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명절 필수품 구입 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마트 PB제수용품으로 명절 상차림 간편하게”

18일까지 할인 행사

롯데마트가 다가오는 추석(9월 17일)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간편 자체브랜드(PB) 제수용품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롯데마트는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요리하다' 캐송편 2종을 1000원 할인된 5990원에 판매한다.

캐송편 2종은 롯데마트가 추석 대목을 맞아 지난달 말 신규 출시한 냉동 간편식으로, 일반 브랜드의 냉동 캐송편 대비 20% 저렴하다.

명절 대표 음식인 전, 갈비 등의 PB 상품들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요리하다 LA식 꽃갈비 (600g)'를 정상가보다 2000원 할인된 1만 5900원에, '요리하다 깻잎전 (300g)'은 1000원 할인된 6990원에 선보인다. 이어 '요리하다 동태전 (300g)'과 '요리하다 남도떡갈비(375g)'를 각



각 5990원에, '요리하다 오징어해물완자(400g·2묶음)'과 '요리하다 동그랑땡(425g·2묶음)'은

7990원 균일가로 판매한다.

명절 간식 및 제수 음식에 필요한 부식 품목들도 할인한다.

'오늘좋은 문완기 명인 식혜 2종(1.8ℓ)'과 '오늘좋은 느리게 만든 수정과(1.8ℓ)'를 1000원 할인한 5990원에, '오늘좋은 우리쌀 미니약과(500g)'은 399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산적 재료로 활용되는 맛살, 햄, 참기름과 잡채 재료인 당면 등 PB상품들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문경석 롯데마트·슈퍼 식품PB개발팀장은 "고물가 및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명절 상차림이 간소화되면서 가성비 높은 간편 제수용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가성비 간편식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감자·양념 돼지고기·연어...이마트 광주점, 먹거리 가격파괴

9월 최대 43% 할인 판매

이마트 광주점이 9월에도 대규모 먹거리 할인 행사인 '가격파괴 선언' 행사를 이어간다.

이마트가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가격파괴 선언은 매일 필수 먹거리와 가공·일상용품 등 주요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이달 가격파괴 품목으로 선정된 먹거리는 감자, 양념 돼지고기, 연어다. 관련 품목을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우선 광주점은 오는 10월 2일까지 감자(1kg)를

직전 판매가보다 43% 저렴한 198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감자 가격을 대폭 낮추기 위해 지난 6월 수확한 감자 1100t을 대량 매입하고, 자체 신선 물류센터인 후레쉬센터에 비축했다.

이어 광주점은 '연어 필렛회(100g·노르웨이산)'를 정상가보다 37% 할인된 389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평상시 대비 2배 수준인 90t 가량의 연어를 마련했고, 이 중 60t을 이번 행사 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가성비 신상품도 기획했다. 광주점은 협력사와 사전 기획 하에 출시한 '양념돼지

갈집구이(700g·2팩)'를 1만 5980원에 판매한다.

이 밖에도 광주점은 오는 10월 2일까지 가공·일상용품 40여개 상품도 특가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CJ햇당면(500g)'을 기존 대비 30% 할인된 3380원에, '팔도 마라왕비빔면(135g·4개입)'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황윤기 이마트 상품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명절 장바구니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명절 먹거리를 중심으로 행사 상품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나혼자 산다' 역대 최대...광주신세계,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출시

토레, 22일까지 20% 할인

광주신세계는 4일 '최근 가구제품의 1인 가구화 등 트렌드 변화에 따라, 다양한 1인용 제품들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년 '나혼자 가구'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우선 광주신세계 본관 8층 '까사미아'에서는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우스터'를 만나볼 수 있다. 우스터 전동 모델은 허리와 발받침대 각도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고, 제품 측면에 USB 충전 단자가 설치돼 핸드폰 충전 등에 용이해 수요가 많다. 우스터 1인 소파는 전동·수동 제품을 별도로 판매하며, 전동제품은 159만원, 수동제품은 10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같은 층에 입점한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토레' 매장에서도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를 만나볼 수 있다. 토레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는 고급차량의 내장재로 활용되는 알칸타라를 사용해 통기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오렌지와 블루, 레드 등 20여가지 색상으로 출시돼 선택의 폭을 넓



했다. 광주신세계 토레 매장에서는 오는 22일까지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를 정가 대비 20% 할인해 24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생활팀장은 "광주신세계는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발맞춰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최대 40% 할인...홈플러스 '갈비 유니버스' 행사

11일까지 짬갈비·돼지갈비 등

홈플러스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명절 대표음식인 갈비 관련 상품을 최대 40% 할인판매하는 '갈비 유니버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외식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중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국산 초이스 냉장 짬갈비(100g)'을 기존 대비 40% 할인된 2670원에 판매한다.

소갈비찜 재료인 배, 간마늘 등도 역시 행사카드(신한·삼성·국민·롯데·농협·광주·전북)로 결제 시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갈비찜 조미료와 소스도 행사를 통해 구매 시 20~50% 할인판매한다. 행사기간 중 재료를 구매하면 소갈비찜을 1인분 기준 7000원에 저렴한 가

격에 조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갈비용 육류를 할인가에 선보인다.

'미국산·호주산 청정우 냉동 LA식 꽃갈비(1.4kg)'는 기존보다 1만원씩 할인해 각각 5만 5900원, 5만6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농협안심한우 냉동 짬갈비(1kg)'를 1만 5000원 할인된 4만 4900원에, '한돈 일품포크 냉장 돼지갈비(100g)'는 40% 할인해 1560원에 판매한다.

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추석 연휴기간 상차림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대표 먹거리인 갈비 관련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에 갈비를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